



곱 추 망 둥 이

가 경 육

바다 낚시중에 가장 쉽고 많이 잡을 수 있는 고기가 망둥이다. 지능지수가 낮은 사람보고 망둥이 같다는 말에 어울리듯이 낚시에 매달린 먹이를 보면 생사불문하고 덤벼들어 낚시를 통째로 삼켜 버리는 망둥이! 나도 그러한 낚시꾼중의 한 사람이었다. 그러나 언제부터인지 나 자신도 모르게 바다 낚시를 가지 않는다. 그 원인은 망둥이 때문이었으리라.

검푸른 등에 반들반들하게 윤기를 내야 할 망둥이가 곱추같이 툭 불거져 나온 등에 붉은 반점! 몸이 너무 가벼워 달고 다니는 반점도 아니요. 다른 고기에게 무섭게 보이려고 달고 다니는 반점도 아니다. 모두가 인간 때문에 바다가 오염된 덕분이리라. 요즘 신문이나 TV등에서는 새강을 살리자고 외치고 있다. 새강이 살아야 큰강이 살고 큰강이 살아야 국민들이 맑은 물을 마실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 누구도 어부들의 삶의 터전이요, 우리의 식탁에서 빼어 놓을 수 없는 어패류가 서식하는 새강 만큼이나 중요한 그 바다를 살리자고 앞장서지는 않고 있다. 그런 오염 원인이 낚시꾼에게도 있지 않나 생각한다.

그 주범의 일부는 낚으로 만든 낚시봉 때문일 것이다. 바다 낚시꾼들이 즐겨잡는 우럭, 노래미등은 깊은 바다 바위 틈등에서 서식한다.

그러한 고기를 잡기 위하여 낚시꾼들은 그 바다 속 바위틈을 찾아 다니며 낚시대를 드리우고 최전방의 초병마냥 정신무장을 하고 낚시봉이 떨어지지 않게 애를 써도 최소한 하루 5개 정도의 낚시봉을 바다에 떨어뜨린다.

그 낚시봉의 크기는 바다의 깊이와 조류의 속도에 따라 다르나 태안반도 근해는 비교적 조류가 느려서 50호~70호를 사용하고 있다. 물론 조류가 빠른곳은 100호 이상의 봉을 사용할 때 도 있지만 말이다.

낚시봉의 호수별 무게 기준표

| 호수 | 16 | 20 | 30 | 40 | 50 | 60 | 70 | 80 | 90 | 100 | 단위 |
|----|----|----|-----|-----|-----|-----|-----|-----|-----|-----|----|
| 무게 | 56 | 74 | 108 | 138 | 172 | 210 | 242 | 274 | 302 | 330 | g |

위 호수에 따른 무게를 계산하면 낚시꾼 1명이 하루 낚시를 하면서 최소한 0.86kg~1.21kg의 낚을 바다에 버린다는 계산이 나온다. (이것은 바다 낚시 전문가를 기준한 계산임)

태안군에서 집계된 94년 5월의 낚시배 통계를 보면 538척/4,304명이 바다 낚시를 한 것으로 되어 있다. 물론 갯바위 낚시꾼등은 제외하고도 말이다.

위 계산으로 볼때 94년도 5월중에 태안반도

바다속에 낚시꾼이 버린 낚의 양은 약 3,700~5,200kg이나 되는 셈이다. 이를 년중 7개월 동안을 바다 낚시철로 셈해 보면 매년 태안반도 근해에 투기되는 낚의 양은 26톤~36톤이라는 계산이 된다.

위와 같이 버려진 낚은 잠수부를 동원하여도 수거조차 할 수 없다. 우리의 현실은 바다 낚시를 제지할 아무런 근거가 없다. 따라서 바다의 오염을 막을 길이 없는 것이다. 외국에서는 바다속의 생태계 보존을 위하여 낚시는 물론 배의 닻을 내리는 것조차 금지하는 지역도 있다한다.

낚시봉의 판매량을 확인하기 위하여 서산시 동문동에 있는 M낚시점의 주인 J모씨에게 질의한바 동 낚시점에서도 연간 3t이상을 판매하고 있다 한다. 서신시.군, 태안군 관내 낚시점 23여개소에서 낚시봉을 판매하고 있으니 잘못된 집계는 아닌것 같다.

우리나라 수질환경 오염 기준에는 낚은 0.1mg/l 이하로 유지하도록 하고 있다. 즉 사람의 건강을 위하여는 10,000kg의 물속에 1g 이상의 낚이 녹아 있을 경우 환경 기준치를 초과한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이다.

0.1mg/l 이하의 낚성분을 유지하여야 한다는 기준에도 불구하고 매년 한반도 전체에 수백톤 아니 수천톤의 낚을 버리고 있으니 말이다. 그 낚이 서서히 부식되어 수십년 또는 수백년 후에 모든 바닷물이 오염되어 어패류등을 먹을 수 없게 된다고 생각해 보자. 무서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사람이 낚의 성분에 중독되면 초기에는 피로, 두통 수면 장애등의 증상을 나타내며 심한 경우에는 불면증, 신경과민, 경련과 혼수상태가 일어난다고 쓰여 있으며, 고대 로마에서는 연간 210만톤의 낚을 이용하였으며 주로 상수도용 파이프, 식기, 화장품등에 이용되었고 이로 인하여 상류사회 로마인들에게 큰 피해를 일으켰으며 로마 제국의 멸망에 큰 원인이 되었다는 문헌이 있다.

우리 모두 바다의 오염을 막고 생태계를 잘 보존하여 이 맑고 깨끗한 바다, 아름다운 바다를 우리의 후손과 전 인류에게 그대로 물려 줄 수 있도록 하여야겠다.

[본회회원 · 태안해안지부]

“八角亭”은 會員여러분과 讀者여러분의 쉼터요. 토론장이다. 自然을 사랑하고 畏敬하는 녹색운동에 참여하는 이의 거침김없는 提言과 熱情의 글월을 기다린다. <200자 원고지 5매 내지 10매이내>